

# FI Weekly



Fixed Income 전병하 02 3779 8633 byunghajeon@ebestsec.co.kr

## 8월 3주차 시장전망

Part I 주간 Review & Preview Part II Weekly Check Point







#### **Executive Summary**

#### Review: (2017.08.07~2017.08.12)

- 국내: 주간 국고채 3년물은 1.742%에서 1.804%로 상승했으며 국고채 10년물은 2.251%에서 2.302%로 상승하였다. 장단기금리차는 단기물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지난주의 50.9bp에서 49.8bp로 축소되었다. 주간 국내 금리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외국인이 단기물을 위주로 국채 현선물 매도를 지속했고 장단기금리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 선진국: 지난주 미국 금리는 한 주전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가를 끌어올린 고용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연준위원들이 부진한 물가가 장기화 되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금리하락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북미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덕분에 국채가는 한층 더 강세를 보였다. 유로존 벤치마크 금리는 전체적 만기에서 금리 하락세를 2주간 이어갔다. 유로존 벤치마크금리는 7월 초 이래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 레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이 있다. 일본 국채시장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주 초반에는 한 주전 미국시장의 약세와 일본 주식시장의 강세를 반영하여 약세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우려요인이었던 주 중반의 30년물 입찰 이후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오퍼레이션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강세로 전환되었다.

#### Preview: (2017.08.14~2017.08.19)

■ 예상치 못했던 북핵위협이라는 지정학적리스크가 지난주 시장금리를 크게 상승시켰다. 지금까지의 북핵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국지적 도발로 그쳤기 때문에 이에 무뎌진 시장의 반응 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르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현재의 북핵리스크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상의 강도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당사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 작성한 Edge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 핵 위협은 서로 얻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8월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전후해서 적당한 수준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펀더멘털과 무관한 리스크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3주차에는 15일 광복절이 있어 휴가철이 이어지는 만큼 광복절이후 북한리스크에대한 윤곽이 나온 이후 점차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리 흐름의 영향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1 주요 중앙은행 이벤트

일자	국가	이벤트	내용
8월 8일	미국	제임스 불러드 연설	실업률과 물가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1.8% 오르는데 그칠 것
8월 8일	미국	닐 카시카리 연설(투표권)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것에 의심을 가지게 한다.
8월 10일	미국	찰스 에번스 연설(투표권)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4조 5천억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8월 10일	미국	제임스 불러드 연설	만약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린다면 이는 위험을 키운다
8월 10일	미국	윌리엄 더들리 연설(투표권)	실업률이 하락함에도 임금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다면 이는 생산성 부진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8월 12일	미국	닐 카시카리 연설(투표권)	7월 물가상승률은 금리인상을 기다리고 지켜보자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8월 12일	미국	로버트 카플란(투표권)	현재 미국 기준금리 수준인 1~1.25% 수준이 적절하고 이 수준에 편안함을 느낀다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외국인의 국채선물매도, 금리상승세는 그래도 진정

주간 국고채 3년물은 1.742%에서 1.804%로 상승했으며 국고채 10년물은 2.251%에서 2.302%로 상승하였다. 장단기금리차는 단기물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지난주의 50.9bp에서 49.8bp로 축소되었다.

주간 국내 금리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북한의 소형 핵 탄두 개발과 이에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반응,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북한의 미국 타격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외국 인이 단기물을 위주로 국채 현선물 매도를 지속했고 장단기금리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주간 외국인은 채권을 1.1조 원 정도 매도하였으며 국채선물의 경우 KTB를 주간 외국인이 5.6만계약 매도하였으며 KTB의 경우 6,680계약 매도하면서 장단기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초장기 금리 구간은 견조한 모습으로 금리상승세가 제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0년물 금리상승세의 상단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되었다.

금리상승흐름이 주 후반에 들어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상승폭을 되돌리는 형 태로 마감된 점은 긍정적이다.

5년물 입찰이 주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입찰 수요가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7일 실시된 본입찰에서 전 거래일 민평 고시금리였던 1.947%보다 2.3bp 높은 1.970%에 7.500억원이 낙찰됐다.

그림1 국고채 금리 농양과 상난기	기금리자	농양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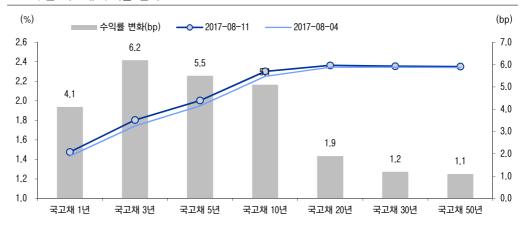
그림2 회사채 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국고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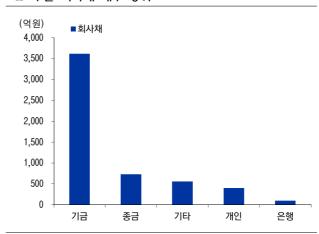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간 국채 매수 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간 회사채 매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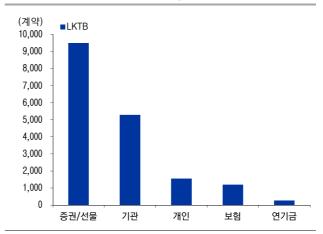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간 국채선물(KTB) 매수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7 주간 국채선물(LKTB) 매수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선진국: 미국이 결부된 지정학적 리스크, CPI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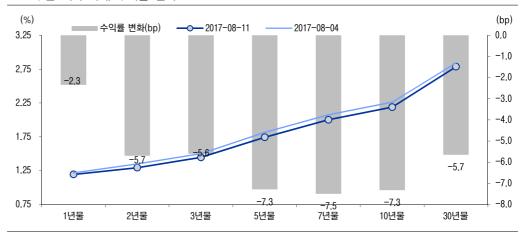
지난주 미국 금리는 한 주전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가를 끌어올린 고용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연준위원들의 스탠스가 최근 PCE 물가지수를 비록해서 부진한 물가가 장기화 되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금리하락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지난 2차례 금리인상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고용상황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상황의호조에 대해서 의심하는 발언을 남겼다. 또한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진 찰스 에번스시카고 연은 총재는 9월에는 금리동결과 자산성상화가 적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남겼다.한편으로는 북미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덕분에 국채가는 한층 더 강세를 보였다. 일시적 요인 이외에도 7월 미국 CPI가 수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채권시장이 보다 강세를 보였다.

유로존 벤치마크 금리는 전체적 만기에서 금리 하락세를 2주간 이어갔다. 유로존 벤치마크금리는 7월 초 이래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 레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이 있다. 점차 유로존 가입국들의 경제 및 물가상승률 레벨이 좋아지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유로존 HICP의 경우 최근 1.3%까지 하락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금리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가적으로는 유럽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그간 급등했던 금리를 다시 되돌리는 수준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벤치마크 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화된다면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국채시장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주 초반에는 한 주전 미국시장의 약세와 일본 주식시장의 강세를 반영하여 약세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우려요 인이었던 주 중반의 30년물 입찰 이후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오퍼레이션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강세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세흐름은 주 후반까지 이어졌으며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 영토로 북한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상경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재배치 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영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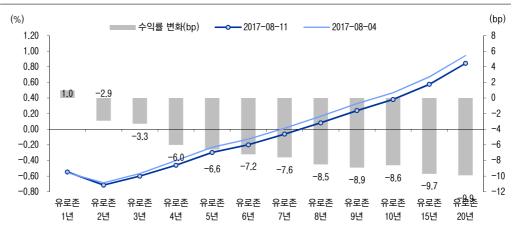


그림8 주간 미국 국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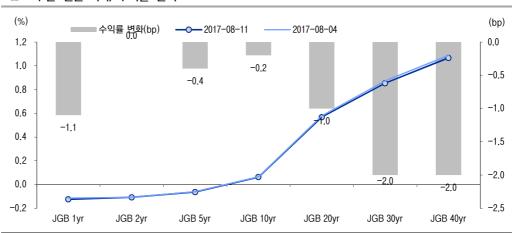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간 유로존 채권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주간 일본 국채 수익률 변화







#### Preview: 8월 3주차 시장 전망

#### 투표권자들의 스탠스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과정이 중요

예상치 못했던 북핵위협이라는 지정학적리스크가 지난주 시장금리를 크게 상승시켰다. 지금까지의 북핵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국지적 도발로 그쳤기 때문에 이에 무뎌진 시장의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르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ICBM에 실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현재의 북핵리스크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상의 강도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당사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 작성한 Edge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 핵 위협은 서로 얻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8월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전후해서 적당한 수준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펀더멘털과 무관한 리스크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3주차에는 15일 광복절이 있어 휴가철이 이어지는 만큼 광복절 이후 북한리스크에대한 윤곽이 나온 이후 점차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리 흐름의 영향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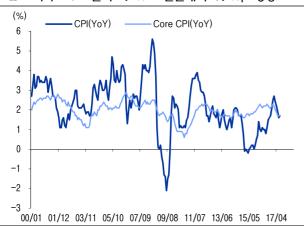
미국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연준위원들의 톤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의 낮은 물가상 승률이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1.00%~1.25%의 현행 금리가 적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찰스 에번스 총재는 9월에는 금리동결과 자산정상화가 적당하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이런 배경이 반영되는 시점이라면 국내 금리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Weekly data check point (Review)

#### **GBEST**<sup>o</sup>

#### 그림11 미국 PCE 물가 1.7%로 전월대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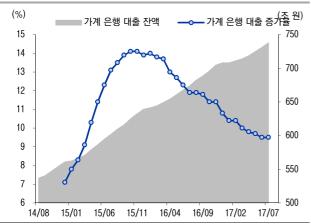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2 미국 주간 평균 실질 소득 증가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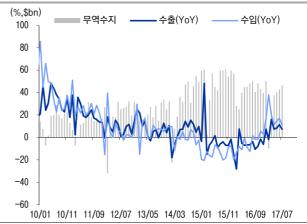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3 국내 가계의 은행 대출 증가율 하락세 둔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4 중국 무역데이터 증가세 소폭 감소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5 일본 은행대출의 증가세 지속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6 일본 기계수주 데이터 증가세 하락







#### Weekly data check point (Preview)

#### 그림17 미국 신규주택착공건수 추세 전환?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8 미국 급락한 소매판매 지표 추이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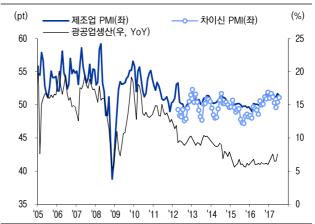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19 미국 미시간대학교 심리지수 발표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20 중국 광공업생산 보다 확대 가능?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21 일본 무역지표 발표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22 일본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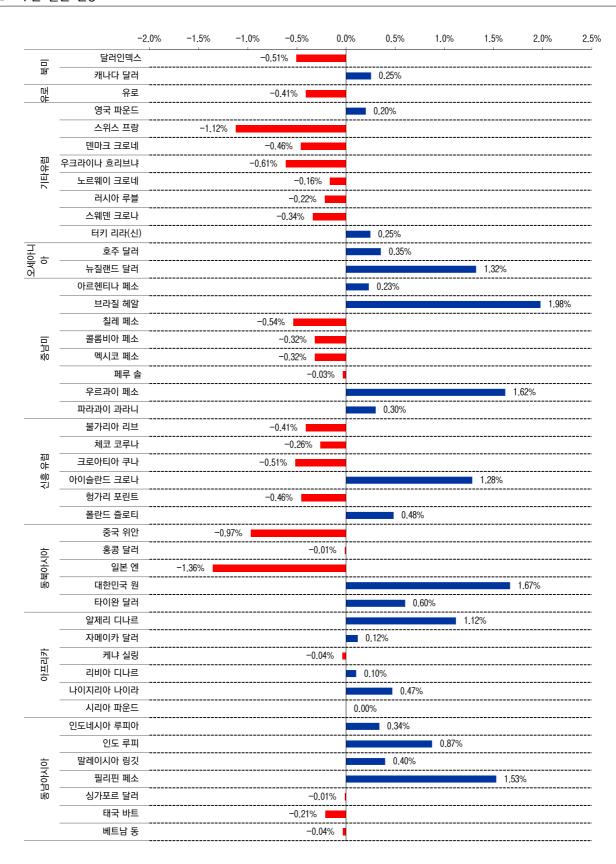


#### 표2 주간 지역별 환율 변화

지역	화폐	Today	1D	1W	1M	YTD	YoY
	달러인덱스	93.07	-0.36%	-0.51%	-2.81%	-9.45%	-2.91%
북미	캐나다 달러	1.27	-0.41%	0.25%	-1.90%	-5.54%	-2.75%
유로	유로	1.18	-0.83%	-0.41%	-3.21%	-12.79%	-6.04%
	영국 파운드	1.30	-0.08%	0.20%	-1.21%	-5.74%	-0.25%
기타유럽	스위스 프랑	0.96	-0.41%	-1.12%	-0.10%	-5.95%	-1.35%
	덴마크 크로네	6.29	-0.85%	-0.46%	-3.11%	-11.31%	-5.71%
	우크라이나 흐리브냐	25.68	-0.13%	-0.61%	-0.92%	-5.95%	3.31%
7141111	노르웨이 크로네	7.93	-0.44%	-0.16%	-3.96%	-8.17%	-4.18%
	러시아 루블	59.84	-0.21%	-0.22%	-1.28%	-2.43%	-7.57%
	스웨덴 크로나	8.12	-0.51%	-0.34%	-3.56%	-10.72%	-4.12%
	터키 리라(신)	3.54	0.03%	0.25%	-1.66%	-0.09%	19.35%
오세아니아	호주 달러	0.79	-0.14%	0.35%	-3.19%	-9.96%	-2.27%
그세이크이	뉴질랜드 달러	0.73	-0.62%	1.32%	-1.02%	-5.54%	-0.72%
	아르헨티나 페소	17.71	0.00%	0.23%	4.52%	11.12%	20.71%
	브라질 헤알	3.19	0.56%	1.98%	-0.46%	-2.81%	1.57%
	칠레 페소	646.80	-0.21%	-0.54%	-2.47%	-3.52%	0.60%
중남미	콜롬비아 페소	2977.49	-0.65%	-0.32%	-2.37%	-0.82%	2.97%
86-1	멕시코 페소	17.83	-0.68%	-0.32%	-0.33%	-13.95%	-3.00%
	페루 솔	3.24	-0.23%	-0.03%	-0.24%	-3.71%	-1.77%
	우르과이 페소	28.82	0.03%	1.62%	0.39%	-1.71%	0.25%
	파라과이 과라니	5579.70	0.00%	0.30%	0.99%	-3.57%	0.58%
	불가리아 리브	1.65	-0.83%	-0.41%	-3.12%	-11.23%	-5.70%
	체코 코루나	22.13	-0.81%	-0.26%	-2.95%	-14.16%	-8.72%
신흥 유럽	크로아티아 쿠나	6.26	-0.84%	-0.51%	-3.24%	-13.13%	-6.86%
C8 11 B	아이슬란드 크로나	106.56	0.39%	1.28%	-1.44%	-6.22%	-10.30%
	헝가리 포린트	257.67	-1.03%	-0.46%	-4.02%	-12.73%	-7.43%
	폴란드 즐로티	3.62	-0.60%	0.48%	-2.23%	-14.02%	-5.29%
	중국 위안	6.66	0.25%	-0.97%	-1.83%	-4.05%	0.45%
	홍콩 달러	7.82	0.03%	-0.01%	0.09%	0.79%	0.80%
동북아시아	일본 엔	109.19	-0.57%	-1.36%	-3.80%	-6.96%	7.71%
	대한민국 원	1143.70	0.17%	1.67%	-0.12%	-5.33%	3.98%
	타이완 달러	30.35	0.10%	0.60%	-0.38%	-6.10%	-3.13%
	알제리 디나르	109.57	-0.12%	1.12%	0.38%	-0.96%	-0.27%
	자메이카 달러	127.90	0.02%	0.12%	-0.04%	-0.74%	0.96%
아프리카	케냐 실링	103.86	-0.09%	-0.04%	-0.13%	1.32%	2.35%
	리비아 디나르	1.37	0.00%	0.10%	-2.54%	-5.22%	-0.35%
	나이지리아 나이라	365.20	-0.56%	0.47%	12.54%	15.82%	14.08%
	시리아 파운드	214.05	0.00%	0.00%	0.00%	0.00%	-0.58%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	13361.00	0.21%	0.34%	-0.07%	-0.83%	1.97%
		64.14	0.09%	0.87%	-0.62%	-5.99%	-4.05%
	말레이시아 링깃	4.30	0.08%	0.40%	0.03%	-4.26%	7.26%
	필리핀 페소	51.01	0.46%	1.53%	0.74%	2.73%	9.02%
	싱가포르 달러	1.36	-0.23%	-0.01%	-1.48%	-6.13%	1.31%
	태국 바트	33.22	-0.12%	-0.21%	-2.40%	-7.29%	-4.44%
	베트남 동	22728.00	0.02%	-0.04%	0.00%	-0.14%	1.94%

### CBEST<sup>O</sup>

#### 그림23 주간 환율 변동



주: 붉은색이 강세, 푸른색이 약세(달러인덱스, 유로, 영국 파운드, 호주달러, 뉴질랜드달러는 반대), 달러화 대비 가치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표3 국채 10년물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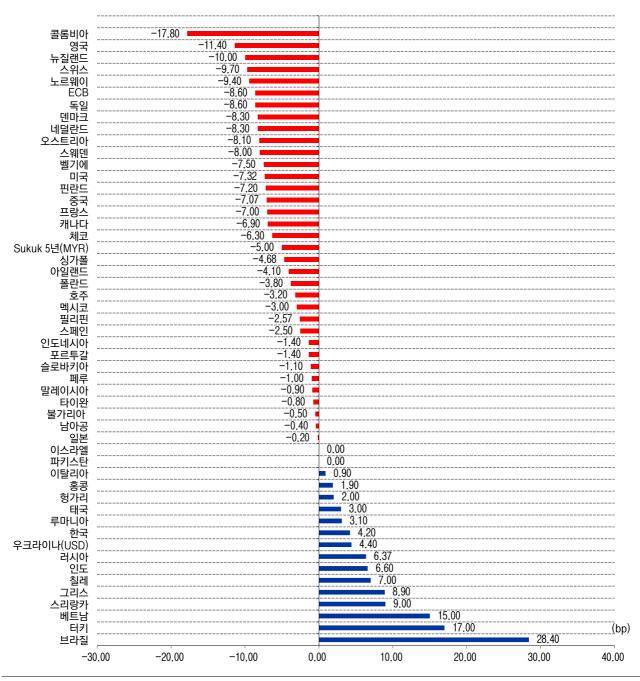
수익률 변화(bp)	Today	1D	1W	1M	YTD	YoY
호주	2.59	-6.90	-3.20	-13.20	-17.70	73.60
오스트리아	0.56	-2.80	-8.10	-18.80	15.20	49.80
벨기에	0.69	-3.00	-7.50	-16.90	17.00	57.00
브라질	10.12	2.00	28.40	-18.60	-112.10	-172.00
불가리아	1.65	-0.30	-0.50	-8.00	-25.80	-51.10
캐나다	1.85	0.00	-6.90	-2.20	13.20	82.20
중국	4.02	-0.44	-7.07	-29.72	7.76	80.22
칠레	4.35	-1.00	7.00	17.00	-1.00	-1.00
콜롬비아	6.75	-4.40	-17.80	-3.90	-36.00	-79.20
크로아티아	1.01	-1.70	-6.30	-8.80	55.70	68.70
체코	0.53	-2.70	-8.30	-17.10	21.60	47.00
덴마크	0.38	-3.30	-8.60	-19.70	19.30	47.50
ECB	0.40	-2.90	-7.20	-16.20	6.00	37.20
핀란드	0.68	-3.40	-7.00	-18.50	0.80	55.50
프랑스	0.38	-3.30	-8.60	-19.70	19.30	47.50
독일	5.55	3.60	8.90	18.70	-157.70	-262.20
그리스	1.55	-0.20	1.90	-6.00	-42.40	61.10
홍콩	3.11	2.00	2.00	-2.00	-5.00	30.00
헝가리	6.51	1.30	6.60	4.80	9.80	-57.60
인도	6.90	1.60	-1.40	-19.20	-107.60	12.30
인도네시아	1.74	-0.40	0.90	-22.50	-0.40	87.40
이탈리아	0.72	-1.90	-4.10	-16.90	-2.90	37.90
아일랜드	2.14	0.00	0.00	0.00	11.00	47.00
이스라엘	0.06	0.00	-0.20	-2.60	1.70	15.80
일본	3.99	0.50	-0.90	1.00	-24.20	37.70
말레이시아	3.77	0.00	-5.00	-8.30	-15.80	43.00
Sukuk 5년	6.85	-2.90	-3.00	2.80	-61.80	99.90
멕시코	0.50	-3.30	-8.30	-20.30	16.80	50.00
네덜란드	2.79	-4.60	-10.00	-20.40	-54.20	66.80
뉴질랜드	1.53	-2.60	-9.40	-15.00	-12.00	47.50
노르웨이	8.21	0.00	0.00	1.00	-31.00	47.00
파키스탄	5.46	-2.00	-1.00	-38.00	-98.00	-25.00
페루	4.94	-4.89	-2.57	-8.10	31.18	170.20
필리핀	1.16	-2.20	-3.80	-21.40	-11.70	53.20
폴란드	2.85	-1.50	-1.40	-25.20	-85.20	11.20
포르투갈	3.91	1.70	3.10	7.70	43.90	101.50
루마니아	7.80	-0.80	6.37	-15.40	-65.89	-44.38
러시아	2.07	-3.61	-4.68	-9.44	-40.74	27.59
싱가폴	0.86	3.90	-1.10	-13.90	-3.50	60.80
슬로바키아	8.65	4.00	-0.40	-13.50	-27.90	20.40
남아공	2.30	-2.00	4,20	2.00	24.80	89.50
한국	1.46	0.00	-2.50	-18.50	12.60	53.30
스페인	10.60	7.00	9.00	-98.00	-183.00	-187.00
스리랑카	0.60	-1.20	-8.00	-6.00	5.50	53.40
스웨덴	-0.16	-1.50	-9.70	-17.10	3.00	39.10
스위스	2.59	-6.90	-3.20	-13.20	-17.70	73.60



수익률 변화(bp)	Today	1D	1W	1M	YTD	YoY
타이완	1.05	-0.50	-0.80	-6.83	-17.63	35.27
태국	2.38	1.30	3.00	-9.70	-26.50	34.20
터키	10.83	4.00	17.00	12.00	-67.00	122.00
우크라이나(USD)	8.07	1.80	4.40	-7.90	-68.60	-1.70
영국	1.06	-2.00	-11.40	-19.90	-17.70	52.40
미국	2.19	-0.87	-7.32	-12.89	-25.55	62.95
베트남	4.80	60.00	15.00	-70.00	-55.00	-220.00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그림24 주간 국채 10년물 수익률 변화



Fixed Income 전병하 02 3779 8633 byunghajeon@ebestsec.co.kr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비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